

# 2009년도 식품안전관리의 변화와 전망

Changes and Outlook in Food Safety Management in 2009



정 기 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건강증진연구실장

국민의 소득수준이 향상되면서 식품안전에 관한 국민적 관심과 요구는 날로 증대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62년 식품위생법을 필두로 2008년 식품안전기본법,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 등을 제정하면서 식품안전의 법적 근본을 마련하였고, 1998년 식품의약품안전청의 개칭으로 조직적 기반을 마련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1995년 WTO 출범으로 인한 세계교역의 완전 개방화로 멜라민 등 식품위해물질의 유입이 증가하는 등 식품안전관리의 업무 영역은 확대되고 있으나 전 세계적으로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추세에 있다.

정부 업무의 효율화를 비롯하여 소비자 역량강화 등 대안 마련이 시급히 필요한 시점이다.

이런 추세를 반영하여 2009년 식품분야 정부 예산은 전년 대비 32.9% 증액이 되었고, 특히 올바른 정보 제공 및 전달(Risk Communication)을 위한 세부분야의 예산 증액은 시대적 흐름에 대응하는 바람직한 편성이라 하겠다.

소비자의 식품안전에 관한 인식 제고 및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식품사고를 저감화하기 위한 2009년 식품분야 사업추진의 기본방향은 다음과 같은 세가지 방향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첫째, 미래환경 변화에 대응

둘째, 규제 합리화

셋째, 소비자중심의 안전관리 강화

이러한 기본방향에 의거하여 기후변화대비, 수입식품의 안전성 제고, 식품안전규제의 일원화 등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 1. 들어가며

국민소득이 2만불을 넘기면서 안전에 관한 소비자의 관심은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식품안전에 관한 요구는 더하여 과거에는 양적인 면에 치중하던 요구가 식품의 안전, 영양, 위생 등 질적인 면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다.

WHO는 질적으로 우수한 식품은 안전성(Safety), 건 전 성(Soundness), 완 전 성(Wholesomeness)이 구비된 식품이라 정의하고 있다.

작년 초 쥐머리, 갈날 등 식품이물이 혼입된 제품은 식품의 안전성과 건전성이 결여된 것이며, 전 세계적으로 큰 파문을 일으키며 여전히 소비자의 불안감을 자아내고 있는 중국산 멜라

민이 들어간 제품은 식품의 안전성, 완전성, 그리고 건전성이 모두 훼손된 대표적인 경우라 하겠다.

이처럼 수입 혹은 국내생산 여부에 관계없이 식품사고가 다발하면서 식품안전에 관한 소비자의 불안감은 확산되고 있는데, 식품이물에 관한 소비자 신고 건수가 2007년 대비 2008년에 7배 증가한 것도 이런 사회적 인식이 표출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1960년대 초 『식품위생법』을 제정하면서 식품위생의 법적 기본 틀을 만들었다. 1998년 『축산물가공처리법』에 의해 축산가공품의 관리가 농림수산식품부로 이관되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는 가운데 2003년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 2008년 『식품안전기본법』과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이 제정되면서 변화되는 식품의 위생과 안전관리에 대응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확충하였다.

또한 1998년 식품의약품안전본부를 모태로 한 식품의약품안전청을 개칭하면서 조직적인 기반도 마련하였으며, 지난 10여년간 식품안전에 관한 조직, 예산 등 인프라도 미미하나마 지속적으로 확대시켰다.

이런 일련의 조치는 1995년 WTO 출범 이래 세계 교역이 완전 개방화되면서 식품안전에 관한 업무 영역이 나날이 확대되는 국제적 추세에 대응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였지만 최근에는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전 세계가 효율적인 작은 정부를 지향하게 되었다.

증가하는 업무량에 반비례하여 축소하는 정부 조직을 유지하며 식품안전을 지켜내기 위한 대책중 하나가 바로 소비자의 역량강화이다.

즉, 소비자 스스로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국가가 최대한 도와주는 것이다.

2009년 편성된 식품예산에는 이런 노력이 잘 반영되어있다. 전체적으로 식품안전분야의 예산액은 증액이 되지만 세부적인 편성예산을 살펴보면 정부의 직접적인 단속 관련 예산은 감소한 반면에 허위과대광고 단속, 식품안전정보센터 설치 등 소비자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예산은 증액되었다.

새로운 사업의 추진과 더불어 기존 사업의 내실화가 함께 중요한 바 이 원고에서는 2009년 식품분야 예산 편성 안을 검토하고, 세부사업별 현안과 여건 변화를 전망해 보고자 한다.

## 2. 2009년 식품분야 예산 편성

### 1) 총괄현황

<표 1>에는 우리나라 식품안전관리를 담당하는 중앙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청의 2008년과 2009년 예산 현황이 제시되어있다.

구분	'08예산 (A)	'09예산안 (B)	증(Δ)감 (B-A)	%
○ 세입	12,234	16,835	4,601	37.6
○ 세출	178,512	188,625	10,113	5.7

※ 연구개발(R/D) : 51,895 → 52,615백만원(720백만원, 1.4%)

(1) 세입예산안

'09년도 세입예산안은 '08년 12,234백만원에서 4,601백만원이 증액된 16,835백만원으로 전년 대비 37.6%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2) 세출예산안

'09년도 세출예산안은 '08년 178,512백만원에서 10,113백만원이 증액된 188,625백만원으로 전년 대비 5.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 분야별 세출예산안 현황

'09년 식약청의 세출예산안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전체 예산중 식품분야 세출예산안이 <표 2>에 제시된 바와 같이 '08년의 24,438백만원

에서 8,039백만원이 증액된 32,477백만원으로 전년 대비 32.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청 전체 예산의 증가비가 전년 대비 8.0% 인데 반하여 식품분야 예산은 32.9% 증가하여 12.0% 감액이 된 의약품과 16.6% 감소한 의료기기 분야 보다 식품분야의 중요성을 더욱 강조한 예산 편성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3) 사업비 세부내역 현황

<표 3>에는 2009년 총 32,477백만원으로 편성된 식품분야 사업비의 세부내역이 제시되어 있다.

총액이 증가함에 따라 세부사업별 예산도 '08년 대비하여 대부분 증액된 상태이다.

일부 감소된 사업의 경우는 사업의 성격이 전환되어 소요 예산이 절감되었기 때문이거나, 기일반예산에서 수행하던 사업을 식약청 R&D사업에서 수행토록 전환함으로써 발생한 삭감으로 사실상 감소된 세부예산은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큰 폭으로 예산이 증액된 부분은 식중독 검사체계 확립사업으로 최근 겨울철 학교급식 발생의 주원인인 노로바이러스를 검사하기 위한 필요 장비 등을 구입하기 위한 예산이다.

그 외 증가된 예산으로는 어린이 먹거리 사업 관련 예산과 유전자재조합식품 안

전 관리 및 식품위해정보의 전달 (Risk Communication) 강화를 위한 식품안전정보센터 설치 예산이 있으며 이들은 순증된 예산의 대표적인 경우이다.

식품안전정보센터는 소비자, 산업체 등 관련자에게 각종 식품안전정보를 전달, 공유하기 위한 새로운 조직으로 향후 시대적 역할이 크다고 하겠다.

표 3. 세부사업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사업명	'08예산 (A)	'09예산안 (B)	증감		비고
			(B-A)	%	
〈총 계〉	96,856	104,588	7,732	8.0	
1. 식품안전성 제고	24,438	32,477	8,039	32.9	
가. 안전한 식생활 보장	8,128	9,736	1,608	19.8	
① HACCP제도 활성화	2,338	3,396	1,058	45.3	○ HACCP적용 표준 모델 구축 등
② 식중독예방 및 관리	712	1,068	356	50.0	○ 홍보매체 다양화(버스, 지하철 등)
③ 식중독균 검사체계 확립	600	1,717	1,117	186.2	○ 노로바이러스 검사 장비 등 확대
④ 식품위해정보 모니터링	2,415	163	△2,252	△93.3	○ 위해물질 분석법 개발 등 시험연구비 R&D에서 수행
⑤ 위해식품 기획조사 및 합동대응	646	581	△65	△10.1	○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 반영 - 단속일수 조정(10 →7일) 등
⑥ 수입식품 안전관리	811	976	165	20.3	○ 수입식품 무작위검사 등 실소요 반영
⑦ 어린이먹거리 안전관리	-	546	546	순증	○ 어린이식생활안전 관리특별법 제정 (08.3)에 따른 소요 반영
⑧ 식품영양성분 국가실험실 관리망 구축	-	600	600	순증	○ 식품영양성분함량 DB구축을 위한 분석 기관 통합관리 지원
⑨ 유전자재조합식품 안전관리	-	395	395	순증	○ GMO식품 교육·홍보 등 안전관리 강화
⑩ 건강기능식품 관리	424	294	△130	△30.7	○ 연구용역사업 일부 R&D에서 수행
⑪ 허위과대광고 단속	182	-	△182	△100.0	○ 분야별(식품·의약품) 안전지원에서 사업 수행
나. 식품안전 지원	2,380	4,991	2,611	109.7	
① 식품관리운영	1,607	1,587	△20	△1.2	○ 부서 운영경비 실소요 반영
② 영양기능식품관리운영	354	377	23	6.5	○ 부서 운영경비 실소요 반영
③ CODEX운영 활성화	419	-	△419	△100.0	○ R&D(식품안전관리)에서 수행
④ 식품안전정보센터 운영	-	3,027	3,027	순증	○ 식품이력추적관리시스템 개발·보급 등
다. 식품안전 연구개발	13,930	17,750	3,820	27.4	
① 식품 등 안전관리	13,930	17,750	3,820	27.4	○ 관리대상 연구사업 일부 조정

표 2. 분야별 세출예산안

(단위: 백만원)

분야별	'08예산 (A)	'09예산안 (B)	증 감 (B-A)	증가율 (B/A)
총 계	178,512	188,625	10,113	5.7
□ 사업비	96,856	104,588	7,732	8.0
○ 식품안전성 제고	24,438	32,477	8,039	32.9
○ 의약품안전성 제고	22,510	19,804	△2,706	△12.0
○ 의료기기안전성 제고	6,012	5,017	△995	△16.6
○ 독성과학원 운영	17,104	16,744	△360	△2.1
○ 지방청 운영	4,371	3,888	△483	△11.1
○ 식의약품행정 지원	22,421	26,658	4,237	18.9
□ 기본경비	13,492	13,239	△253	△1.9
□ 인건비	68,164	70,798	2,634	3.9
* R&D(각 사업비에 포함)	51,895	52,615	720	1.4

### 3. 사업 추진의 기본방향

2009년 식품분야 사업추진의 기본방향을 다음과 같이 세가지 방향으로 전망해 볼 수 있겠다.

#### 1) 미래환경 변화에 대응

수입식품의 지속적 증가, 기후변화(온난화)의 가속화에 의한 식중독 발생 증가, 그리고 유전자재조합식품 및 식품위해물질의 유입 증가 등 변화하는 환경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한 사업 구상이 되어야 할 것이다.

#### 2) 규제 합리화

식품분야도 타 분야와 마찬가지로 규제 완화가 추구되는 규제 합리화가 필요하다. 즉, 절차적 규제는 간소화하고, 안전규제는 강화하는 등의 식품분야 규제정책의 합리화를 위한 규제과제 발굴 및 개선이 필요하다.

#### 3) 소비자중심의 안전관리 강화

식품안전관리의 최종 목표는 소비자를 위한 식품안전관리 강화이다. 현재 이원화되어있는 식품안전규제의 일원화가 우선 추진되어야 하고, 식품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현장중심의 세부 사업별 평가와 환류가 이루어져야 하겠다.

식품산업 수준을 제고하기 위한 국가차원의 재정 지원을 위한 재원마련은 결국 식품가격의 안정화에 기여할 것이다. 그리고 적절한 안전관리가 가능토록 식품안전분야의 조직, 예산 등 인프라가 확충되어야 할 것이다.

### 4. 세부 사업별 현안 및 전망

#### 1) 식중독

2000년 이후 리스테리아 등 새로운 저온성, 병원성 바이러스에 의해 식중독 발생이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여름철에 집중되던 식중독 발생이 노로바이러스<sup>1)</sup> 등에 의해 겨울철에도 다발하고 있다.

또한 사회복지 시스템의 확충에 따른 학교급식 등 집단급식의 실시가 확대되면서 식중독이 대형화하고 있는 추세이며 이런 추세는 향후 지속될 전망이다.

식중독 관리시스템 개선, 원인균 및 원인식품의 검출률 제고, 지속적인 소비자 홍보 및 교육 실시 등 다양한 정책적 개선이 필요하다.

#### 2) 기후변화(온난화)

기후변화 중 기후온난화는 식품안전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전 세계적으로 지구의 평균온도가 상승하고

1) 노로바이러스는 식품, 음용수 등에 존재하고 있으며, 전파력이 매우 높아 특히 학교, 호텔 등 단체생활을 하는 집단에서 주로 발생되고 있고, 저온성이라 겨울철에도 생존하고 있음.

표 4. 섭취장소별 식중독 발생현황

(단위: 건, 명, %)

구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6월		
	건수	환자수	건수	환자수	건수	환자수	건수	환자수	건수	환자수	건수	환자수	건수	환자수	
가정집	7	117 (3.9)	7	81 (1.0)	7	44 (0.4)	9	111 (1.9)	15	119 (1.1)	30	151 (1.6)	6	35 (1.0)	
음식점	29	586 (19.7)	46	1,441 (18.2)	35	1,052 (10.1)	53	1,021 (17.9)	108	1,971 (18.2)	289	3,476 (35.9)	85	1,161 (32.2)	
호텔·여관	-	-	-	-	-	-	-	-	-	-	-	-	-	-	
집단급식소	계	16	1,392 (46.7)	67	6,130 (77.5)	72	7,738 (74.5)	30	3,751 (65.7)	93	8,073 (74.5)	98	4,533 (46.8)	23	1,751 (48.6)
	학교	9	806 (27.0)	49	4,621 (58.4)	56	6,673 (64.2)	19	2,304 (40.3)	70	6,992 (64.5)	57	3,101 (32.0)	20	1,679 (46.6)
	기업체 등	7	586 (19.7)	18	1,509 (19.1)	15	1,026 (9.9)	11	1,447 (25.3)	23	1,081 (10.0)	41	1,432 (14.8)	3	72 (2.0)
	기타	-	-	-	-	1	39 (0.4)	-	-	-	-	-	-	-	-
기타	26	290 (9.7)	26	885 (11.2)	39	1,206 (11.6)	13	729 (12.8)	33	515 (4.8)	82	1,320 (13.6)	22	620 (17.2)	
불명	-	-	-	-	12	348 (3.4)	4	99 (1.7)	10	155 (1.4)	11	206 (2.1)	5	38 (1.1)	

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청 내부 공개자료, 2008년 6월말 자료기준임(11월말 공개자료)

있고, 지난 100년간 한반도도 1.5℃ 상승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는데 이런 우리나라의 기온증가는 세계적인 경향의 2배 정도로 높은 수치로 기후 상승에 따라 강수일수는 감소하였으나 연간 강수량은 증가하여 단위 일당 강수량의 크기가 증가하고 있다.

<표 5>에 제시된바와 같이 기상연구소에 의하면 150년간의 기후변화 시뮬레이션 결과에 의하

표 5. 기후변화 예측

구분	세계	국내
기온	0.74±0.18℃ 증가 (1906~2005, 육자+해양평균)	1.5℃ 증가(1906~2005) (6대도시, 도시화효과포함)
해수온도	0.10℃ 증가 (1961~2003)	약1.0℃ 증가 (1968~2004)
해수면	0.17±0.05m 상승 (20세기)	연간0.1~0.2cm 상승 (1960~2006)
강수량	지역별로 증가와 감소지역이 구분됨	연평균 강수량 증가 단, 강수일수는 감소

자료: 정보과학기술보좌관실, 기후변화의 현황과 대응 연구의 보완방향. 2007. 10.11

면 21세기에는 열파현상 증가, 겨울의 단축, 강수일수 감소, 호우 및 가뭄 증가 등 온난화에 따른 변화가 심화될 전망이다.

이처럼 평균기온이 상승함에 따라 식품분야에서는 식중독 발생 증가 등이 예측되고 있는데 <표 6>에 제시된 바와 같다. 즉, 2050년에 2007년 대비 평균기온이 1.2℃ 상승하면 식중독 발생률은 약 6%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기후온난화에 대비하여 일반적인 권고안은 가속화되고 있는 온난화의 속도 조절과 국민들의 기후온난화에 적응하기 위한 방안 마련이다. 하지만 식품안전분야에서는 기후 온난화에 의한 식품매개질환 발생 예측 및 영향 평가와 대응방안 및 적응방안 마련이 동시에 필요하다.

IPCC(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에서는 각국의 정책결정권자에게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당장 투자를 적극 권장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숙고해볼 필요가 있다.

### 3) 수입식품

우리나라는 세계 5위의 식품수입국으로 총

섭취열량의 50% 이상을 수입품에 의존하고 있다. 2007년 말 현재 식품시장규모를 31조원으로 추정할 때 수입식품 시장규모는 약 8조원이라 볼 수 있다<sup>2)</sup>.

2005년 대비 2007년에 전체 수입식품량이 약 2배 증가하였고, 2015년에는 2007년 대비 또 2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작년 멜라민 사건 등 전 세계적인 식품 공포를 유발한 중국산은 2005년 대비 2007년 4배 증가하였고, 2015년에는 2007년 대비 2배 증가가 예상되고 있다. 2007년말 현재 중국산 식품 수입규모는 약 3조원으로 우리나라 수입식품시장의 1/3을 점유하고 있다.

이처럼 수입식품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고, 또 증가할 전망이다(표 7 참조). 더불어 수입식품에 의한 식품사고도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다.

수입식품에 의한 사고는 동종의 국내식품 시장에도 막대한 영향을 끼치므로 안전한 식품을 수입할 수 있도록 수입업자 관리체계, 검사체계 등 전반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며, 특히 전체 수입물량의 1/3 가량을 점유하고 있으며, 수입을 피할 수 없는 중국산 식품의 안전성 제고 방

표 6. 예측모형에 의한 식중독 발생 전망

(단위: °C, 건, 명)				
연도	평균 기온	식중독 발생 증가비	식중독 발생건수	식중독 발생자수
2003~2007 평균	13.6°C	-	236.0	8,905
2020	14.8°C	6.3	250.9	12,052.4
2050	16.6°C	15.8	273.8	13,300.5
2080	18.6°C	26.4	297.4	-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내부자료, 2008.

2) 정기혜 외(2006). 중국산 수입식품 안전성 확보를 위한 수입식품검사체계 개선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표 7. 연도별 식품 수입 실적

(단위: 백만달러)

구분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합계	3,079	3,892	4,006	5,250	4,763	5,327
가공식품	2,270	3,070	2,703	3,664	3,460	3,885
건강기능식품	-	-	433	581	470	215
식품첨가물	368	387	418	475	604	519
가구 및 용기·포장	441	435	452	529	230	708

주: 단, 농·임산물 수입실적은 제외함.  
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청, 「수입식품 등 검사연보」, 각 연도.

안은 시급히 마련되어야 할 국가적 사안이다.

어린이 먹을거리 안전과 연계해서도 중국 등 위생취약국의 저가 위해식품의 수입은 반드시 근절되어야 할 또 다른 국가적 사안이다.

### 4) 유전자재조합식품

<표 8>에 제시된 바와 같이 대표적인 GM식품인 대두와 옥수수의 수입량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조합식품이 재배되고 있지 않지만 [그림 1]에 나타난 바와 같이 전 세계적으로는 해마다 유전자재조합 농작물의 재배면적이 증가하고 있다.

이런 추세에 비추어 우리나라도 유전자재조합 식품의 수입과 섭취가 증가할 전망이다.

유전자재조합식품에 관한 정책, 특히 표시에 관해서는 주요 수출국인 미국, 중국 등과 주요 소비국인 유럽연합, 일본, 한국 등은 입장이 상반대이다. 유럽연합에서는 2003년 이후 우연히 또는 공정상 불가피하게 함유되는 경우에는

0.9%의 한계치를 지정하고 한계치 이상의 경우에는 표시하도록 정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최종제품에 재조합된 유전자의 검출 여부에 상관없이 원료로 사용시 표시토록 범위를 확대한 바 있다.

2008년 국무총리실에서도 사회적 위험요인으로 선정한 바 있어 소비자 알권리차원에서 신중한 정

표 8. 대두와 옥수수의 수입량 현황

(단위: 톤, %)

구분		2006년	2007년	2008년 1~6월
대두	전체수입량	1,126,879	1,185,167	556,898
옥수수	전체수입량	8,669,653	8,579,028	4,200,79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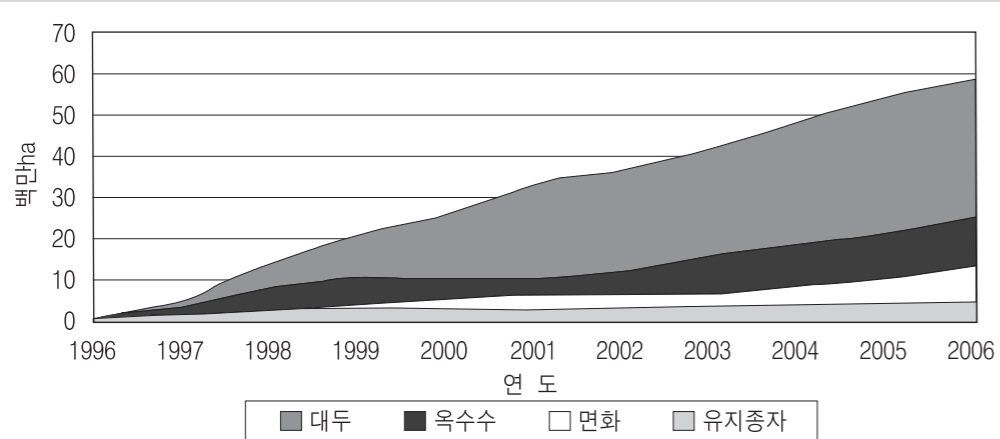
주: HS 코드분류 기준은 대두(12-01), 옥수수(10-05)임.  
자료: 관세청 홈페이지(http://www.customs.go.kr), 「무역통계시스템」 검색 구성.

우리나라는 아직 식용을 목적으로 유전자재

책적 접근이 필요한 분야로 사료된다<sup>3)</sup>.

3) 한국행정연구원(2008). 사회위험 요인 분석 및 체계적 관리방안. 한국행정연구원.

그림 1. 유전자재조합 농작물 재배면적 추이



주: 유지종자는 카놀라임.  
자료: ISAAA, Clive James, 20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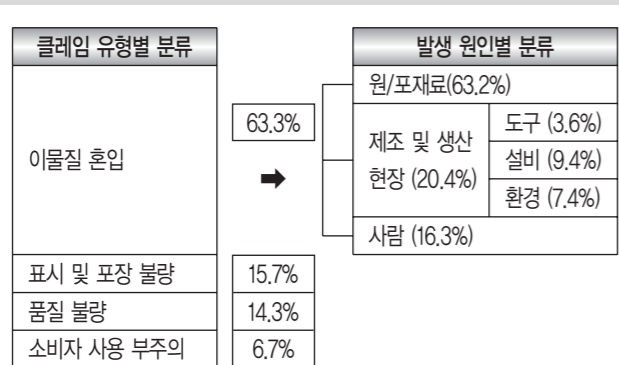
5) 식품이물

작년 초 생쥐머리가 들어간 과자사건을 발단으로 온 국민의 관심이 집중된 분야로 해마다 소비자 클레임 중 이물 클레임이 차지하는 비율은 [그림 2]에 제시된 바와 같이 전체 클레임의

60% 이상을 점유하고 있다.

이물은 식품위해요소로 <표 9>에 제시된 바와 같이 주로 물리학적 위해에 속하지만 건강에 직접 위해를 끼칠 수도 있고, 식품의 비위생적 취급 및 관리의 증거가 되기 때문에 관리의 중요성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그림 2. 소비자 클레임 현황



2008년 연구결과에 의해 이물의 범위를 비의도적 혼입까지 확대하며, 특히 혼입된 이물을 검출하기 위한 제어장비를 설치하도록 하는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으며, 또한 식약청에서 식품이물 신고 시 포상금을 주는 제도도 마련한 바 있다.

이처럼 이물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식품별, 이물별 혼입

표 9. 식품 위해요소 분류

분류	내용
생물학적 위해	세균, 바이러스 등의 미생물로 식중독균이 대표적
화학적 위해	농약, 항생물질, 중금속, 환경호르몬 등 만성위해 원인
물리적 위해	플라스틱, 칼날, 애벌레 등 식품내 이물(Foreign Materails)

허용치를 마련하여 현장에서 준수할 수 있는 현실적인 식품이물 관리방안을 조기에 마련해야 하겠다.

이물 혼입의 저감화는 필요한 조치이나 우주식이 아닌 경우에 불검출(0%)이 되기는 사실상 어려운 상황으로 U.S FDA처럼 식품별, 이물별 최대허용치(DALs)를 마련하여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식품이물에 관한 소비자의 올바른 인식 정착을 위한 홍보가 강화되어야 하는 등 식품이물에 관해서는 규제 완화, 강화가 함께 검토되어야 한다.

근 식품위해물질에 의한 사고가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발생되었던 중국산 멜라민 사건처럼 식품오염물질의 의도적, 비의도적 혼입이 증가하고 있으며, WTO 출범이래 식품교역의 완전 자유화로 오염된 식품의 국내 유입은 향후에도 해마다 증가할 전망이다.

식품위해물질인 식품에서 검출되는 납, 수은, 카드뮴, 알루미늄 등은 인체에 직접적인 독성이 강할 뿐 아니라 만성적으로 내분비계 교란작용이 있어 혼입 차단이 반드시 필요하다.

OECD 회원국 대부분이 식품안전과 관련한 각종 법규나 규제를 강화하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6) 식품위해물질

<표 10>에 제시된 바와 같이 우리나라도 최

우리나라도 향후 증가할 식품위해물질에 관한 규제 강화는 반드시 필요한데 특히 아플라톡신, 오클라톡신 등 식품곰팡이류와 사용이 증가

표 10. 식품위해물질에 관한 언론 보도 현황

구분	2002	2003	2004	2005	2006
의도적 첨가·사용	24(15.7)	87(13.6)	93(7.4)	93(9.4)	5(5.3)
비의도적 오염·용출	51(33.3)	92(14.4)	118(9.3)	128(13)	53(55.8)
기타	53(34.6)	78(12.2)	107(8.5)	112(11.3)	13(13.7)
일반기사	25(16.3)	384(59.9)	945(75)	655(66.2)	24(25.3)
보도건수 합계	153	641	1,263	988	95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내부자료, 2008.

하는 쿠마린 등 식품첨가물의 기준, 규격 설정과 더불어 안전관리를 위한 선진국 수준의 규제 강화가 이루어져야겠다.

단계적으로 볼 때 식품위해물질의 관리는 조기 사전 위해정보 수집이 1차 예방수단이 될 수 있으며, 2차적으로는 검사실 인프라 강화로 오염된 물질의 정확하고, 신속한 검출이 이루어져야겠고, 마지막으로 문제된 제품의 신속하고 완벽한 회수, 폐기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

이와 더불어 식품안전 기준·규격의 선진화가 단기적으로 필요하며 중장기적으로는 법적 규정의 국제적 조화가 필요하다.

### 7) 건강기능식품

2007년말 건강기능식품의 시장 규모는 7천 억원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전 국민 섭취율은 10%에 달하고 있다.<sup>4)</sup>

2003년 건강기능식품의 정부차원의 관리를 위한 『건강기능식품관리법』이 제정되면서 주로 기존 건강기능식품의 재평가와 품목인증에만 집중했던 정책적 관심을 이제는 소비자가 체감

하는 정책의 효과적인 방향으로 전환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미국 등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광고, 제형 등 많은 부분이 우리나라보다 규제가 완화되어 있음은 여러 연구결과에서 밝혀지고 있다.

건강기능식품 관련 규제를 전면적으로 완화하기는 어렵지만 다만 개별인증을 받은 제품에 관한 광고에서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는 근거가 제시된 보충자료의 제공이 허용되는 등 일부 광고에 관한 규제 완화정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제형 자율화에 따른 효율적인 표시방법 마련과 소비자의 인식 등이 조사되어 소비자 인식에 바탕을 둔 규제 정책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 8) 식품안전규제

2008년말 현재 모든 가공식품의 안전관리는 식약청이 담당하고 있으나 1998년 제정된 『축산물가공처리법』에 의해 <표 11>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육함량이 50% 이상, 유지방 함량이

3% 이상인 축산가공식품은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담당하고 있다.

멜라민 사건의 처리과정에서도 나타난 바와 같이 식품안전규제가 이원화되어 있어 분유는 농림수산식품부가 과자류는 식약청이 각각 검사를 실시하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식품안전관리체계의 일원화에 앞서 식품안전규제의 일원화가 우선되어야겠다.

25% 수준에 그치고 있다. 또한 기금의 사용처도 주로 식품접객업소(유흥주점 등 포함)의 시설개보수 자금으로 집중되고 있어 기금조성의 취지를 제대로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2009년에는 어린이 식품안전구역내의 우수업소 지원 및 이물 검출장비 설치를 위한 업체 재정지원 등 소비자를 위한 식품안전관리를 위한 가용재원으로 사용될 수 있는 적절한 조치가 마련되어야겠다.

표 12. 축산가공품의 구분관리 현황

농림수산식품부	식품의약품안전청
햄(육함량 50% 이상)	소시지(육함량 50% 미만)
아이스크림(유함량 3% 이상)	아이스배(유함량 3% 미만)
분유	과자/초콜릿(분유사용 가공품)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내부자료, 2008.

### 10) 어린이 식생활

#### (1) 종합계획 수립

2008년 3월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이 제정됨에 따라 2005년부터 추진되기 시작한 어린이 먹을거리에 관한 사업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으며 법에 명시된 바처럼 3년 주기로 종합계획을 수립, 공포하여야 한다.

2007년 2월 식약청에서는 5개 분야별 10개 핵심과제를 포함한 어린이 먹거리 안전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발표한 바 있지만 법 제정 후인 올해가 원년으로 1차 종합계획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다음은 2007년 발표된 종합대책의 5

### 9) 식품진흥기금

식품업체 과징금, 수익금, 출연금으로 조성된 식품진흥기금은 <표 13>에 제시된 바와 같이 2007년 말 현재 282,626,453천원이 누적되어 있다.

연간 사용액은 기금관리기본법에 의거하여 지자체에서만 사용토록 되어있어 총 누적액의

표 11. 건강기능식품 관련 업소 현황

(단위: 개소)

구분	합계	제조업			수입업	판매업		
		소계	전문제조	벤처제조		소계	일반판매	유통 전문판매
2005	44,307	310	298	12	1,635	42,362	41,614	748
2006	49,203	337	313	24	1,955	46,911	45,833	1,078
2007	50,255	345	319	26	2,201	47,709	46,649	1,060

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의약품통계연보』, 통권 제10호, 2008.12.

표 13. 식품진흥기금 운용 현황

(단위: 천원)

구분	수입				지출		
	합계 (a)	전년이월 (b)	순수입 (c)	시·도 교부금 (d)	적립금(E) = (a)-((f)+(g))	순 지출 (f)	시·군·구 교부금(g)
합계	358,881,261	296,454,904	56,912,358	8,571,665	282,646,453	70,720,809	8,571,665

자료: 보건복지가족부 내부자료, 2008.

4) 정기혜 외(2008). 건강기능식품의 비타민/무기질의 최대함량기준에 관한 순응도 및 인식도 조사. 식품의약품안전청.


개 분야이다.

- 건강저해 식품의 유통·판매 근절
- 어린이 기호식품의 안전성 확보
- 단체급식의 위생 및 품질 개선
- 올바른 식품 선택권 보장
- 안전관리 제도적 기반 구축

## (2) 어린이 식생활 사업 수행 실적 평가

어린이 먹거리 사업은 종합계획에 의거하여

각 지자체별로 추진하게 된다. 중앙정부차원에서는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지자체에 시달하고 또한 사업 추진실적을 평가, 환류하여 어린이 먹거리 사업의 정착을 유도해야 한다.

2007년 기 사업평가를 위한 평가지표가 개발되어 사전평가를 실시한 바 있고<sup>5)</sup>, 2009년에는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에 근거한 3년 주기의 지자체 사업 평가를 위한 첫해로 2010년 전국 지자체 평가조사를 준비해야 한다. 즉, 2009년 예비평가 실시와 본 조사 평가체계가 확정되어야 할 것이다. 

5) 정기혜 외(2007). 어린이 먹거리 안전기반 평가제도 연구. 식품의약품안전청.